

“남북 적대·대결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가야”

정동영 통일부장관, 평화통일교육 주간
모교 '전주교' 찾아 한반도 평화 주제 특강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제14회 평화통일교육 주간'을 맞아 모교인 전주고등학교를 방문해 일일 평화통일교사로 미래세대와 소통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동영 장관은 이날 전주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에 대해 설명하며 평화로운 한반도의 가치에 대해 특강했다.

정 장관은 강연에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를 강조하면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평화를 실천하는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가 △자유로운 상상 △풍부한 독서 △많은 여행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1953년 7월 27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서 태어났으며 전주고등학교 48회 졸업생이다. /김재훈 기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제14회 평화통일교육 주간'을 맞아 모교인 전주고등학교를 방문해 일일 평화통일교사로 미래세대와 소통에 나섰다.



전은·국민연금, '1사 10억 가꾸기' 봉사활동

전북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9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1사 10억 가꾸기' 공동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지역 대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국립묘지를 찾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은행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20명이 참여해 현충탑을 참배하고, 결연을 맺은 묘역에 태극기를 꽂는 한편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총령당에서 보훈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호국영령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5일에도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를 방문해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섬 주민들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의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상근 기자

진심의 의료 실천 20년, 새 출발 기원 | 효사랑전주요양병원, 메디컬 그룹 20주년 기념식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사람의 삶과 마음까지 돌보는 진심의 의료 실천 20년, 새 출발 기원 | 효사랑 메디컬 그룹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동과 비전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효사랑 메디컬 그룹은 지난달 2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효사랑 메디컬 그룹 20주년 기념식 및 진 그룹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효사랑 가족과 전북 각계 인사 등 1,6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효사랑 메디컬 그룹의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효사랑 메디컬 그룹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펼쳐갈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요양병원으로 출발한 효사랑 메디컬 그룹은 의료를 넘어 교육·유통·문화·자산관리·시니어 산업 등 삶 전반을 아우르는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이날 '진 그룹'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또 한 번의 도약을 선언했다.

행사장에서는 효사랑의 성장 기반이 된 가족과 계열사 대표들이 소개되며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특히 박진호·박진성·박진영·박진상·박진우·박진만·박진영씨 등 일곱 형제가 함께 무대에 올라 효사랑의 성장 역사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진상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세월을 진솔하게 회고했다.

그는 "31년 전 인후통에서 작은 한의원을 시작해 중앙시장 떡골목 2층에서 힘겨운 시절을 보냈고, 2006년 노송동에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을 개원한 지 어느덧 20년이 됐다"며 "T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와 효사랑 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은 이제 전국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성장했고, 40여 개 계열 사업장을 아우르



지난달 2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효사랑 메디컬 그룹 20주년 기념식 및 진 그룹 비전 선포식'.

는 그룹으로 발전했다"며 "우리를 품어준 전북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살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원장은 "그간 제가 해 온 역할은 석가래 정도였고, 실제 대들보 역할은 김정연 부원장이 해주셨다"며 자신의 아내이자 인생의 동반자인 김정연 부원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공개된 비전 영상에서는 진 그룹의 핵심 가치로 '진심(眞)', '진전(進)', '완성(辰)'을 제시하며 "당신의 삶을 5성급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또 메디컬 사업을 비롯해 레저·문화, AI·테크, 종합자산관리, 시니어 유통 등 5대 핵심 사업 분야를 공개하며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단순한 의료기업을 넘어 삶의 질과 행복까지 책임지는 종합 라이프케어 그룹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2부 순서로 열린 '진심 콘서트'는 행사장의 감동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뮤지컬 배우이자 팝페라 가수 임태경은 '넌라 판타지



야, '지금 이 순간, 사랑은 생명의 꽃'을 열창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고, 팝페라 그룹 라 클라씨는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브라보 마이 라이프', '붉은 노을'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전주가 낳은 세계적 바리톤 고성현은 '저 언덕 너머 누가 살고 있을까, 더 입파를 드림, '고맙소'를 선택하며 목직한 감동을 전했다. 마지막 곡 '축배의 노래'는 소프라노 전주진과 함께 듀엣 무대로 꾸며져 큰 환호를 받았다.

가수 린도 자기가 여보야 사랑해, '시간을 거슬러' 등 대표곡을 선보이며 공연의 열기를 더했다.

박진상 원장은 "10주년 기념식은 삼성문화관에서 열었는데, 20주년을 더 큰 무대에서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난 2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콘서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심을 더해 더 큰 책임감과 따뜻한 가치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부안읍,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나서

부안군 부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달 29일 직원 10여 명이 본격적인 모내기과 밭작물 수확 등으로 바쁜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부안읍 내요리에 위치한 고추재배 농가 재배지(약 600평)를 방문해, 고추 지주대 및 제초매트 설치 작업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 구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이러한 현장의 시급함을 파악한 부안읍 직원들이 직접 나섰다.

김병태 부안읍장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손이 부족한 취약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가구 11곳에 방역 소독 지원



남원시 도동동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유)서남환경(대표 서덕교)이 최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11가구에 맞춤형 방역소독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도동동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독행진'을 통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해충 발생 위험이 높은 저소득 가구를 발굴하고, (유)서남환경은 방역소독을 취약 가구에 재능기부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농심천심 우리 쌀' 기부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중철)는 지난달 29일 순창군 자활센터(센터장 한승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지립을 돕기 위한 '농심천심 우리 쌀' 기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부행사는 순창 지역 자활 근로자들과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농협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고, 군지부는 작년 연말 70만 원 상당 기부에 이어, 금차에 130만 원 상당의 우리쌀 등 총 200만 원 상당을 자활센터에 기부했다.

한편 순창군지부는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지원,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김제시, '프로젝트 169' 아동 돌봄 안전망 강화

김제시는 김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전북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지원사업 '프로젝트 169'를 추진하며 지역사회 아동 돌봄 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 169 사업은 의료·보건·양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13세 이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및 임신부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아동학인증은 의료기관 이용 및 각종 지원서비스 연계 시 활용되며, 아동의 건강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유아 구강검진 지원, 임신부 진료 및 출산 치료비 지원, 아동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등이 있으며, 양육자를 위한 금융교육과 기타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관 이용과 건강관리 지원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가정에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포용적 돌봄 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협자산관리 전북, '우리마을 희망동행' 나눔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북지사(지사장 이용우)는 지난달 28일 농업·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우리마을 희망동행'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축협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을 지원하고 농촌 공동체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구이농협(조합장 최만열),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 농가주부모임 등이 함께 참여해 관내 마을에 사랑의 건강 밀반찬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주민들은 "지역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도움을 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용우 지사장은 "어려운 농촌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중산신협, 취약계층 위한 여름김치 나눔

전주중산신협(이사장 리양노)은 최근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름김치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주중산신협이 김치 담그기 비용 전액을 후원하고, 복지관 관계자와 화산동성당, 해바라기 봉사단 등 20여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행사는 무더위 속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복지관 지역보호 대상자와 사제관리 대상자 등 먹거리 취약계층 100가구를 각 가정에는 열무알갱이김치 2kg과 깻잎김치 500g이 전달됐다.

참여자들은 채소 손질과 세척, 양념 준비, 김치 담그기와 포장 작업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과 기관, 봉사자들이 함께 이웃의 건강한 여름을 응원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의미를 더했다. /오상근 기자